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이상각 교수



여성 천문학자라는 닉네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상각 교수. 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젊음만으로도 생기 넘치는 4월의 캠퍼스에는 봄꽃으로 화려함이 극에 달해있었다.

“아마도 천문학자가 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듣고 계신 말이 여성 천문학자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남녀평등시대에 산다고 해도 이런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 거부감 같은 건 없으신지요?”

“천문학과에 입학 당시 20명 정원 중 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문기상학과였죠. 기상 쪽에 여자 선배가 계셨지만, 천문 쪽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입학 면접 때도 교수님이 이런 일을 여자가 할거냐 하는 식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시선에 대해 그러려니 합니다.”

“정말 지겹도록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보군요.”

여성 천문학자라는 닉네임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가보니 의외로 여성 천문학자가 많더군요. 제가 자라온 시대가 남자가 공부하기 위해서 누나가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동시대의 다른 어머니들보다 상당히 깨있으셨어요. 언니나 오빠도 공부를 잘했고, 큰언니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해외 유학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특이하던 시절입니다. 주변에서 저 집은 이상한 집이다 하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면 대충 몇 연도였죠?”

“1960년대 초였습니다. 저도 졸업 후 유학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남녀가 동등하게 기회를 갖도록 키우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빠가 다른 집보다 대접을 덜 받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결혼을 했는데, 시댁도 저희 집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여성으로서 천문학을 계속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학생 때 홍일점이셨는데, 남학생들로부터 특별대접을 받거나 하는 재미있는 일은 없으셨나요?”

“재미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누구랑 조금만 얘기를 해도 소문이 나고, 또 그런 걸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꺼렸어요. 그리고 학교 바로 뒤에 집이 있어서 뒷문으로 학교 갔다가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보니 재미있을만한 일이 없었죠.”

공부에 파묻혀 살던 대학 시절에 유일한 여가 활동은 여학생 등산부였다.

“차주는 못 갔지만 방학 때 오대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그렇게 다녔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좋은 추억이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집에서 가까운 산

에 오르곤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밤에 관측한다거나 천문학을 공부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밤에 관측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힘든 일이죠. 요즘에야 따뜻한 조종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관측을 하지만, 예전에는 밤새 망원경 옆에 붙어 앉아 관측을 해야 했습니다. 밤새 촬영한 사진 건판은 암실에서 현상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었죠.”

유학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은 바로 관측하는 날 일어났다. 천문대는 차로 한참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외진 곳. 더구나 혼자 가서 관측을 해야 했다.

잊혀지지 않는 어느 관측일

“눈이 많이 왔던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천문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눈이 쌓여서 차를 길에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촬영할 무거운 사진 건판 더미와 먹거리를 들고 눈을 헤치며 천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관측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는데 자동차 키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찾다 차안을 보니 키가 차안에 떨어져있더군요. 근처 민가를 샅샅이 집은 비어 있고 사람이 없더군요. 다시 돌아와 보니 차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머리를 끈으로 묶고 다녔었는데, 그 머리 끈을 풀어 끝에다 핀을 달아서 자동차 키 낚시를 했습니다. 결국 낚았죠. 제 일생 최대의 낚시였습니다.”

그날 이 교수는 상당히 많은 촬영을 했고, 덕분에 '이달의 천문학자'로 뽑히기도 했다. 고생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던 하루였다.

“천체 망원경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천문학 교수방에 현미경이 있네요.”

“촬영한 사진 건판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서울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사용해오던 것이니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사용합니다.”

연구실 한 쪽 책장 안에는 사진 건판이 가득하다. 미시간 대학에 보관 중이었던 1천여 개의 사진 건판을 2003년에 빌려왔다. “사진 건판을 가져온 목적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화하면 컴퓨터로 다양한 처리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반납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작업이 끝나는 때가 반납일이 될 겁니다. 가져올 당시 미국 천문학계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시간 대학교 담당 교수가 저와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디지털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진 건판이 유리이다 보니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라도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kpc(1pc=3.26광년) 내에 있는 모든 별의 분광 관측입니다. 이때 사진 건판에 담긴 많은 표준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신입생 중에 미분이나 적분을 풀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물으니, 틀리지 않는 애기라고 한다. 사교육이다 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난 반면 학력 수준은 떨어졌다는 것. 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다.

하루, 하루 충실하고자 한다

“만나는 천문학자 누구에게나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천문학자가 되셨나요?”

“수학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어렸을 때 수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로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리보다 좀더 스케일이 큰 천문학을 하길 권유하셨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 운이 많이 따랐는지 별 탈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만큼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너무나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이상각 교수. 현재 이 교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새롭고 커다란 하나의 목표가 아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뜨면 만나는 새로운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